

세풍산단 알루미늄 공장 미세먼지 논란

“오염 유발 중국업체 입주 막아달라” 국민청원 15만여명 참여 광양경제청 “대기오염 우려 없어...고용창출·경제활성화 기여”

광양시 세풍일반산업단지에서 들어설 알루미늄공장이 ‘미세먼지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진위와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의 한 시민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 알루미늄공장, 막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으며 29일 현재 15만 6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시민은 게시판에 “중국은 스모그 발생 주원인으로 알루미늄공장을 꼽았고 작년에는 알루미늄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타이는 연간 77만t을 생산하는 중국 알루미늄업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산량만 봐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협받지 않나 싶다”며 “영세업체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타이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알루미늄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지금 광양엔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

해서 인근 사람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 걱정으로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알루미늄 공장까지 더해지면 광양, 여수, 순천과 더불어 인근 지역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자료를 내고 “세풍산단에 들어설 한국법인 광양 알루미늄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기 오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중국 알루미늄공장에서 환경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은 원석을 제련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광양 알루미늄은 환경오염원이 발생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고 전기와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해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알루미늄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제품의 주재료인 알루미늄 스트립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광양에서 생산하면, 오히려 국내업체에 유리한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중국 민타이그룹 알루미늄공장이 들어설 세풍일반산업단지.

것”이라며 “제품도 90% 이상 수출할 예정이어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국 민타이그룹은 최근 광양경제청과 입주 계약을 하고 세풍산단에 400억원을 투자해 8만2644㎡ 규모의 알루미늄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해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광양경제청은 민타이그룹의 투자로 사업개시와 함께 16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2단계 투자 시 총 3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

다. 또 총 수출입 물동량은 약 1만 4000 TEU에 이를 것으로 보여 광양항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민타이그룹의 한국법인 광양알루미늄 공장은 중국 공장에서 제련을 마친 알루미늄 덩어리를 들여와 열을 가해 포일이나 판재를 생산한다. 알루미늄 스트립 10만 t, 알루미늄 포일 2만 t 등 총 12만 t을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량 중 약 90% 이상을 유럽, 인도, 동남아, 남미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갑섭 광양경제청장은 “세풍산단 내 알루미늄 2차 가공 관련 연관산업 유지는 고용창출과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결단코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권역 ‘웰니스 관광’ 활성화 본격 나선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공모

광양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권역(광양·여수·순천·보성)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광양시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남도바닷길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개발된 콘텐츠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적의 웰니스 관광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시도에 나선다.

이번 제안공모는 학술·연구·컨설팅업체와 여행사 간의 공동 도급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남도바닷길 권역의 사업 공동추진 협약에 따라 이번 용역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사업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은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건강한 생활·음식, 회복·휴식, 진정한 경험, 질병 예방과 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남도바닷길 권역의 웰니스 관광 여건을 조사·분석해 특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직접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4개 지자체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각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살려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제안공모가 남도바닷길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웰니스관광’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광 자원 발굴과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00원 시내버스 중·고생까지 확대

광양시는 초·중·고·대학생 대상 100원 시내버스를 내년부터 중·고·대학생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초·중·고·대학생 교통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초·중·고·대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운영해 왔다.

운영 결과 이용객이 월 평균 500여명씩 증가하는 등 이용객의 반응이 좋아 중·고·대학생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해 왔다.

시는 교통카드 이용객 현황 분석을 토대로 2019년 초·중·고·대학생 78만여명을 예측하고, 시 의회에 예산 6억8100만원을 요구했다.

현재 중·고·대학생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100원을 할인받아 9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시는 이번 100원 시내버스 중·고·대학생 대상자 확대가 교통카드 이용자 증가로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휴양림사업소에서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광양시 휴양림사업소 목공예 기능인 양성과정 마무리

9명 자격증 취득 성과

광양시 휴양림사업소는 생활 속 목재문화 보급 이력 목공예 기능인 양성과정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전문 강좌는 광양목재문화체험장에서 1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1회에 걸쳐 55시간의 중·장기 과정으로 진행됐다.

강좌는 한국DIY가구협회 전문 1급 강사가 목재와 가구에 대한 지식과 목공 공

구사용법 등 가구를 만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이뤄졌다.

또 목공 공구와 기계를 활용 서랍장, 수납장, 탁자, 다용도 수납장 등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생활에 필요한 다른 가구들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을 연마했다.

특히 이번 강좌는 목공예 전반적인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수료와 함께 목공교육사 2급 자격증 필기와 실기시험 응시를 지원한 9명이 자격증을 최종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목재문화를 확산과 더불어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올해 교육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목공인 양성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 개장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각 연령층별로 목재재료를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작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문의 061-762-9511, 9512.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섬진강휴게소, 남해안 대중교통 연계·환승거점 육성

복합형휴게소 후보지 선정 광양시, 편의시설 등 확충

광양시는 섬진강휴게소가 남해안 대중교통 연계·환승거점 및 복합형휴게소 조성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선정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남해안권 10개 지자체(전남, 경남, 광양, 여수, 순천, 고흥, 거제, 통영, 남해, 하동)가 국토연구원에게 공동 의뢰해 추진한 ‘남해안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용역은 남해안권 8개 시·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 구축과 실행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섬진강휴게소는 용역 결과에서 남해안권 8개 시·군의 28개 정류장 중 환승, 이용객수, 교통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섬진강휴게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섬진강 Ex-HUB(환승휴게소)로 개통한 이후 남해안권에서는 유일하게

고속버스·시외버스 환승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탑승이 가능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여러 지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환승휴게소 개통 이후 외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섬진강휴게소는 기존의 휴게소기능에 특산물 판매, 지역콘텐츠 체험 등 지역진흥기능과 환승기능을 제공하는 복합형 휴게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인근 편의시설 확충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주관의 관계기관(전남도, 한국도로공사 등)에 TF팀 구성을 건의했다.

또 사업 실행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는 등 섬진강휴게소가 남해안 관광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